

## 잃어버린 영광을 찾아서

### 「학력사항」

-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경력사항」

- 제24회(1990년) 외무고시 합격
- 현) 주 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주 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공사
- 주 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 주 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 외교통상부 구주국 러시아 CIS과 과장
- 외교통상부 의전장실 주한공관담당관
-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 주 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2등서기관
- 주 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2등서기관



송금영

## I. 머리말

고시공부 7년!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같은 책으로 공부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수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가?

더욱이 왜 어떤 사람은 2년만에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몇 년 만에 합격을 하는가?

나는 이러한 의문 속에서 수험생활을 보냈다. 결론적으로 얻은 해답은 고시공부에 얼마나 성실했는가이다.

고시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고시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그 무엇에 성실(?)하지 않았는지 항상 자문해 봐야 한다. 이것이 고시합격의 지름길이며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II. 첫 영광

나는 1958년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남해는 이씨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성계가 남해 금산 보리암에서 천일기도하여 이씨조선을 창업했고,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무찔러 이씨조선을 지킨 이충무공의 충렬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같은 역사적식 속에서 남해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고시공부를 해왔다.

1974년 나는 남해종합고등학교에 수석입학함으로써 생애 첫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수석의 자만심 속에서 학교공부보다는 철학서적 등을 탐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플라톤·논어·맹자·데카르트 등의 저서를 이해는 못했지만 끝까지 통독한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던 탓으로 고등학교 졸업시 송금영이 농땡이 '농'의 농금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자만심이 후일 고시공부를 7년으로 연장시킨 원인인 것은 물론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얻은 것이 있다면 '과도한 칭찬은 자기반성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값진 교훈이었다.

## III. 영광을 찾아서

### 1. 대학생활

고등학교 시절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1년 재수를 하고 육사에 응시했으나 2차시험의 체력검정에 시력이 나빠 떨어졌다. 집안사정상 동아대 야간부 정외과에 1978년 입학했다. 정외과에 지원한 동기는 정치학이 제 학문의 제왕이고 폭넓은 학문을 하고 싶는데 있었다. 대학 1년을 중국문학에 심취하면서 보냈고, 군대 3년을 마치면서 1982년 2학년에 복학을 했다.

복학한 후 혼자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공부하기 위하여 야간대학에 입학했지만, 성격상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5급 행정직(지금은 9급)에 두 번 합격을 했지만 차라리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하에 발령을 받자마자 모두 사표를 냈다. 사표를 수리하던 동창이 "자네는 사료를 내기 위해 시험을 치는가."하고 반문했던 기억이 난다.

이 때부터 대학 도서관과 형님집을 왔다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시 기거하던 형님집은 학교에서 왕복 30분 거리에 있었다. 새벽 6시에 도서관에 도착하여 새벽공부를 마치고 아침 8시에 다시 형님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저녁 도시락 2개를 들고 다시 등교하였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밤에는 야간수업을 저녁 10시까지 했다.

이같은 단조로운 생활을 2년 정도 했다. 아마 이 때가 수험공부의 어느 때보다 자기에게 성실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의 학비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었다.

## 2. 고시에의 도전

외무고시에 뜻을 둔 이유는, 첫째 대학 4년 동안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졸업장 하나를 땀그랑 얻기 위하여 대학 4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주간엔 직장을 다니던 Classmate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졸업장에 이자 붙는가?” 둘째는 전공을 살리고 싶었다. 셋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고시공부를 했는지 모른다. 가난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도서관에서 학교공부에 충실했고, 방학 동안에 고시공부에 전념했다. 3학년 1학기 때 외시 1차에 처음 도전했으나 예상대로 낙방하였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도서관을 몇 달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 관례적으로 지정석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히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1792~1814) 당시 나폴레옹이 Prussia를 정복하여 말을 타고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Hegel이 “세계정신이 말(馬) 위에 있다.”라고 외쳤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본적이 있다. 나는 당시 세계정신이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절대정신이 나는 도서관에 묶어 두었을 것이다.

## 3.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괴테는 “신은 인간에게 입을 주었지만 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은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지만 애인을 주지 않았다.

인간은 한창의 20대에 빵과 사랑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데 인생의 고뇌가 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J를 알게 되었다. 같은 반 Classmate관계로 자연히 정이 들게 되었고, Campus Couple로 우리의 이름이 도서관에서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다.

3학년 2학기 어느 날, 그녀가 보여주는 다른 사람과의 약혼사진을 찢어버리면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남자는 울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있으나 인간은 울 수 있지 않나! 사람이 환희의 편지라면 이별은 죽음의 편지일 것이다. 그녀와 헤어진 후 한달 정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작은 사랑을 잃음으로써 더 큰 사랑을 얻는다는 쇼펜하우어의 글귀 속에서 안식을 찾았고, 눈 내리는 밤 산사에서 그녀의 행복을 두 손 모아 빌었다.

## 4. 도전과 좌절, 그리고 방황

사랑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책을 잡았을 때가 1983년 11월! 외시 1차가 앞으로 3달 밖에 남지 않았다. 부산 범어사의 계명암에 짐을 풀고 겨울방학 3달 동안 그 곳에서 공부를 했다.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갔다가보다는 오히려 속세의 허망함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기 위해 절로 도피했던 것이 옳은 이유일 것이다.

마음이 허전할 때 불경을 자주 읽었다. 특히 천수경의 “죄무자성종심기”(죄의 본성은 없는데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절방의 문틈 사이로 눈이 들어 머리맡에 눈이 쌓인 적이 있다.

4학년 1학기에 외시 1차에 합격을 했다. 절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덕택이었다. 처음으로 성실의 큰 대가를 찾은 것 같아 매우 기뻐다.

1984년 1차에 합격한 후 동아대 기숙사인 지독료에 입실하게 되어 2차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외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고, 외시에 합격하신 선배님도 계시지 않아 어떻게 2차공부를 해야 할지 막연했다. 고시잡지 등에 실린 합격기 등을 읽어 보고서 대강 감을 잡았으며,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무모한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7년의 수험기간이 증명하고도 남는다.

마침내 도서관 · 고시원 · 절 등을 번갈아 가면서 방랑의 고시생활이 시작되었다. 2차 시험 치기 몇 달 전에 서울로 상경하는 것이 연중행사가 되었으며, 2차시험 합격자 발표날은 나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2차시험 치는 날, 내가 아니면 합격할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이 2차 시험 발표하는 날이 되면 내가 아니면 떨어질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던 그 몇 해의 긴 세월!

고시 동기생들은 하나 둘 합격을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내가 실력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통탄했던가. 1988년 9월!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기 위해 송광사를 찾아가 범정스님과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 송광사를 떠날 때 범정스님이 「마음 바꾸기」라는 책을 주시면서 돌아가는 차안에서 읽어보라고 하셨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외시 Deadline, 32살까지 해보고 합격하지 못하면 속세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미련없이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겠다고!

## 5. 고르바췌프의 개혁과 합격

1988년 10월, 앞으로 외시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그러나 성실한 인간이라면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만약 합격한다면 이 2년은 나의 불행했던 5년의 과거를 보상할 수 있으며 앞으로 30년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불합격의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보고 처음 외시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여 '89년 다시 1차에 응시하였다. 지금까지 3번의 1차합격 성적 중 최고의 점수로 합격하였다. 동시에 2차 합격도 기대했지만 평균 2점 차이로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1년! '89년 5, 6월 두달을 「러 · 일전쟁과 한국의 중립화정책」이라는 석사논문을 쓰는데 보냈다. 7월, 예년보다 일찍 서울에 올라와 정릉 모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잘 정리하면 내년에는 합격할 것 같았다.

1990년 1월, 위무고시 합격자를 종전의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어쨌든 이것은 나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중도에 고시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나의 노력(?)에 대한 역사의 선물이었다. 4일간의 2차시험을 마치고 허심탄회하게 시험장소인 방통대를 나섰다. 소위 고시계를 떠나는 날이었다.

최종합격자 발표날 속리산 법주사에서 고시계에 전화를 했다. 합격이라는 아가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90년도에도 20명을 뽑았더라면 나는 2차 성적상 떨어졌을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덕택으로 35명을 뽑게되어 겨우 합격을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의 영향이 나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세계정신은 어디에도 편재하는가 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내의 쓴맛을 본 사람이 열매의 단맛을 알겠는가?

#### IV. 고시합격의 변수

불교에서 '여래(如來)는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을 걸어 가는 사람은 구도자(求道者)이다.'라는 말이 있다. 취사선택의 주체는 본인이며, 타인의 의견은 항상 참고 사항일 뿐이다.

고시공부 7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을 몇 가지 서술해 보고자한다. 고시의 조기합격을 위한 충고라는 점에서 고시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1. 기본자세

고시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은 "My way"의 영화속에 나오는 Marathon runner의 자세이다.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면 죽는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에 참가하여 뛰어가는 것이 고시생의 인생인 것이다. 내년에도 합격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오늘도 책장을 넘겨야만 하는 것이 고시생의 운명이라면, 다만 하루하루 성실함으로써 이같은 불안감을 이길 수 있으리라.

##### 2. 건강

육체와 정신과의 관계는 그릇과 그 속의 물과 같다. 금이 간 그릇에 고인 물은 조금씩 새게 마련이다. 고시를 2~3년 하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많은 잔병을 얻게 된다. 특히 극도로 신경이 쇠약해지면 만사에 의욕이 없고, 공부에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하루하루 적당한 운동을 하며 자기의 생체리듬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패배적인 자의식에 세상을 자기의 감옥으로 만드는 수가 있다. 하루 10시간 6일 정도 공부한다면, 일요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좌선이나 단전호흡으로 자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좌선은 머리를 맑게 하는 바, 큰 스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3. 공부장소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공부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도서관은 장기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집중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고시원은 단계적으로 집중하기에는 편리하나 장기적으로 한곳에 체류할 경우 사람이 왜소해지고 자기만의 시간확보가 어렵다. 절은 단계적인 집중에 용이하지만 장기적 체류 시 건강유지가 힘들고 고시 이외의 잡기에 빠지기 쉽다.

#### 4. 책의 선택

책의 선택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합격생이 원하는 보편적인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책의 선택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개념이 용이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② 최신판인가 ③ 전 공학자의 저술인가 ④ 전반적으로 이해가 용이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는가 등이다.

#### 5. 공부방법

학문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어떤 과목을 독립시켜 공부할 경우 쉽게 싫증을 느낀다. 특히 고시공부를 장기간 한 사람은 같은 책을 몇 년간 되풀이하여 읽는데 지치게 된다. 따라서 공부에 취미를 붙여야 한다. 그 방법은

- ① 공부한 책의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 ② 공부한 내용에 대해 서로 토의해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 ③ 과목끼리 서로 연관지워 공부해야 한다. 국사·문화사·외교사를 연관지워 총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보기로서 1854년 서양에서는 크림미아전쟁이 발발했고, 동양의 중국에서는 1856년 애로우호사건이 발발했으며, 일본은 1854년 미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세계사적인 사건들과 185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계시켜 공부함으로써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④ 외교사의 지식을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부와 답안작성에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역사적 배경 없는 이론은 없다. 따라서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한다. 앞으로 외시과목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외교사가 국제정치학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과목으로 될 여지가 크다.
- ⑤ 헌법을 공부할 때 행정법과 관련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행정법의 근거도 헌법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경우 행정법의 답안에 신선감을 줄 수 있다.
- ⑥ 경제학과 재정학, 국민윤리와 사회학을 서로 연관지워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 ⑦ 외국어 공부는 하루에 백번 보고 쓰고 외우고 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나의 경우 영자신문의 사설을 정치·군사·문화·사회·남북관계·외교 등으로 나누어 각 10매씩 선별하여 반복해서 외웠다.

#### 6. 답안작성요령

2차시험의 합격·불합격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답안작성방법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없으면 합격할 수 없다.

답안작성의 유형은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미형이다. 개미는 소화할 수 없는 양식을 가능한 많이 축적하려고 한다. 따라서 개미형의 답안작성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답안지에 가능한 많이 서술하려고 한다. 이는 이책 저책을 탐독하여 짜집기한 내용을 다른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해력 · 창의력이 부족하여 고득점할 수가 없다.

둘째, 거미형이다. 거미는 어떤 것을 먹은 후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거미형의 답안작성자는 이론을 독단적으로 해석하여 편협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요약된 1~2권의 책만 읽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벌꿀형이다. 벌은 섭취한 화분과 자기의 체액을 혼합하여 꿀을 만들어낸다. 벌꿀형의 답안작성자는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켜 창의성 있는 답안지를 구성하여 고득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답안을 시험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② 출제된 문제가 그 과목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③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④ 출제된 문제가 한국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훌륭한 답안작성을 위해서는 ① 신문사설을 매일 탐독하여 분석하고 ② 어떤 과목의 한 단락을 공부한 후 모의답안에 실제시간에 맞춰 서술해 보고 ③ 1주일에 한 번 정도 group study를 하여 모의시험을 치는 것이다.

## 7. 면접시험

외시는 행시 · 사시와 달리 1, 2차 시험성적과 무관하게 3차 면접시험만으로 당락을 결정짓는다. 외시 3차면접은 오전의 개별면접과 오후의 집단토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90년 외시 3차시험 문제는 개별면접에 '외무고시에 응시한 동기',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외교적 대응방안',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의 관계'등이다. 오후의 집단토론에는 '약소국이 국제정치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1인 3분 정도 발표하였다. 이 외에 'TV program I like best'에 대해 영어로 1인 3분 정도 토론을 했다.

면접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내용보다는 발언태도이다. 시험관의 질문에 응시자가 얼마나 침착하게 대답하는가가 중요하다.

## VI. 맺는 말

승리자는 많은 대부(代父)를 가지는가,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미약하나마 효도를 한 것 같다. 7년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형님·형수, 특히 매년 한약을 지어주신 큰 형님의 은혜는 잊을 수 없다. 물질적 도움을 준 동아대 당국, 그리고 사랑하는 S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우명으로 삼기는 글귀가 있다.

“구도자여!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처럼 홀로 살아가라. 진리의 길은 너무 좁아 돌이 같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어느 불경에서〉

## “제트 기류로 자연 그대로의 바람을 느껴라!” 파나소닉코리아, ‘Smart Ball’ 출시

- 강력한 직진성 바람으로 먼 거리까지 공기순환 기능, 사계절 내내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 빠른 공기 순환기능을 통해 냉·난방 효과 극대화, 전기절약 가능
- 국내 공기순환기 중 소음과 소비전력 최소, 가성비 최고로 주부 마음 사로잡아



▲ 파나소닉 에어 써큘레이터(Air Circulator) ‘스마트볼’ 측면

“실내 공기/온도 관리 기기 ‘스마트볼’ 하나로 사계절 내내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를 유지해요~”

파나소닉코리아(대표 노운하, panasonic.kr)는 효율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사계절 내내 최적의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스마트볼(Smart Ball, 모델명: F-25WFA)’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볼은 실내 공기과 온도, 분위기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에어 써큘레이터 (공기 순환기) 및 선풍기의 기능은 물론이고, 미세 먼지나 주방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을 밖으로 환기 시키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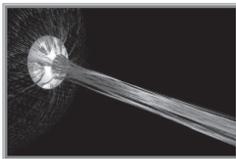
파나소닉 ‘스마트볼’은 기존의 프로펠러 형태의 기기들과는 달리 ‘유인 기류’의 특성을 이용한 구의 형태로 고안하여 직진성 터보 기류가 강력한 직선 바람을 생성하고 먼 거리까지 원활한 공기 순환을 돕는다. 또한 건강을 고려한 자연풍 모드는 장시간 바람을 맞아도 체온 저하를 최소화하고 저전력 (최대 18.5 W)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파나소닉 '스마트볼'은 후면 모터가 고압화된 공기를 전방으로 전달하여 강력한 직진성 터보 기류를 생성한다. 이 기류는 기압차의 원리에 의해 약 7배까지 풍량을 증폭시켜 탁월한 공기 순환 효과를 보인다. (공기 속도: 4.5 m/sec, 공기 전달: 8.6 m<sup>3</sup>/min) 극대화된 직진성 바람이 먼 거리까지 공기를 순환 시켜주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체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분산시켜 냉·난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파나소닉 '스마트볼'은 강한 유인 기류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의 형태로 설계하였다. 또한 기존에 없는 360도 회전 기능(자동 회전)은 자유자재로 전방위 송풍이 가능하여 어느 곳에 두어도 사각 지역 없이 공기를 순환한다. 자연풍 모드는 일본에서 산림욕 명소로 유명한 신슈 다테시나 고원에서 부는 바람을 측정하고 풍속이나 강약의 리듬 등 치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장시간 맞아도 기분 좋은 바람을 구현한다.

파나소닉 '스마트볼'은 국내 에어 써큘레이터 중 소음과 소비 전력이 가장 낮은 것도 특징이다. 파나소닉 '스마트볼'의 소음과 전력량은 소음이 18~49dB로 기존 선풍기 동작 소음이 60dB 이상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소비전력은 2.5~18.5 W이다. 또한 '스마트볼'은 자체 날이 없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5단계 각도 조절(60°, 90°, 120°, 180°, 360°)이 가능하며, 풍량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무게는 2.9Kg, 색상은 샴페인 골드, 펄 화이트, 크리스탈 레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모던한 디자인은 실내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나소닉코리아 상품사업본부 본부장 스자키 이사는 “파나소닉 공기순환기는 선진국인 일본 시장에서도 이전 모델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내공기 관리는 물론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에어 써큘레이터를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 절약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끝)



파나소닉 '스마트볼'



기존 에어 써큘레이터



선풍기

### 〈참고자료 : 에어 써큘레이터(Air Circulator)〉

공기의 흐름이 정체된 실내에서는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 천장에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바닥에 모이게 되는데 에어 써큘레이터를 활용하면 바람을 가깝게 전달하는 선풍기와 달리 직진성 바람을 먼 거리까지 빠르게 전달하여 실내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시킴으로써 상층과 하층의 온도 편차가 사라지고 집 전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함께, 겨울에는 온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실내 냉기나 온기가 골고루 퍼져 냉난방 효과가 극대화 된다.

